



[산업]
현대로템
폴란드 철도 진출 쾌거
3358억 트램 수주
06

[라이프]
신라면세점
크리니크 팝업스토어
고객 만족도 ↑
L1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 정부가 매입, 전통시설로”

〈옛 미국대사관 숙소 터〉

박원순시장 시정질문 답변

경복궁·광화문광장과 인접 정부와 민속박물관 이전 협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17년째 공터로 남아있는 종로구 송현동 땅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12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종로구 송현동 부지 구상 계획이 있느냐는 임종국 의원 질의에 “시가가 5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중앙 정부가 매입해 일부는 공원화하고 나머지는 우리 전통문화를 함양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옛 미국대사관 숙소 터인 송현동 부지



박원순시장.

지만 여의치 않아 올 2월 연내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해당 부지 옆에 풍문여고를 매입해 공예박물관을 만들고 있다. 국립 민속박물관이 세종으로 가는 것보다는 송현동 부지로 옮겨오는 게 좋겠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근대 문학관이 이곳에 오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중앙정부가 받아주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와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을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대 총장과 대화를 나눴지만 여려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차량 기지를 이전하면 유류부지가 나오는데 서울 동북부 일대를 경제 중심지로 만들 절호의 기회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임기 중 이 부분에 대해

그림을 그려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의논하는 안 중 하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될 만큼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서울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박 시장은 “중앙 정부 추경에 서울시가 궤를 같이하는 민생,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이 들어있다”며 “만약에 정부 추경이 늦어지지만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시의회가 통과시켜주면 시 예산이라도 먼저 쓰겠다”며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런 기조 하에 시의회와 논의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지하철 전역사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1~8호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초미세먼지 걸러내는 공기청정기 설치



지하철 대청소 모습.

/서울교통공사

50μg/m³ 이하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공사는 매주 토요일 대청소를 통해 역사 내 승강장 노반 바닥, 벽면, 표지판 등 보이지 않는 먼지를 비눗물로 닦아낸다고 전했다. 지난 3월부터 지하철 대청소를 시작해 현재까지 1호선 전체 10개역, 4호선 수유역, 5호선 광화문역 등 총 21개역에서 청소를 마쳤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교통공사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고성능 공기청정기 설치, 지하철 대청소 등 가능한 기술과 인력을 투입해 지하철 내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지하철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체감도 높은 공간인 만큼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기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총 4432개(역사당 8~16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공기청정기로 초미세먼지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7월 1일 개정·시행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기존 150μg/m³ 이하에서 100μg/m³ 밑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항목은 신설해



평화를 심다

12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민간인통제선 안에서 열린 평화를 심는 DMZ 모내기에서 참석자들이 유색벼를 심으며 평화 메시지를 논에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국가유공자 1.7만명에 위문금 지급

효국보훈의 달 맞아 총 9억원 지급

서울시는 효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1만7716명에게 총 9억810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6·25전쟁에 참전해 장애를 갖게 된 1~2급의 ‘중상이자’는 기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3~7급에 해당하는 ‘상이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위문금을 상향한다.

저소득, 80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위문금도 기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전몰·순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부인인 미망인 총 2292명에게는 처음으로 위문금 5만원을

지급한다. 미망인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을 받는 부인을 의미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단체도 지원한다. 25개 자치구 내 9개 보훈단체, 223개 지회에 각 30만원 씩 총 6690만원을 지급한다.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중앙보훈병원에는 위문금 300만원을 전달한다.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는 유공자,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참배객 수송 차량 운영도 지원한다.

지역사회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보훈대상자 19명에게는 서울시장표창을 수여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공무원 363명 신규채용

서울시는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시험으로 신규 공무원 363명을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행정직군 142명 ▲기술직군 209명 ▲연구직군 12명을 선발한다. 직급별로는 7급 269명, 9급 82명, 연구사 12명이다.

시는 8월 6~9일 서울시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 필기시험은 10월 12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1월 19일이다. 이후 11월 30일 인성검사와 12월 12~20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김현정 기자

대기오염 배출 위반업체 32건 적발

경기도와 인천시, 시흥시와 합동으로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도내 15개와 인천지역 17개 사업장 등 총 32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6일간 인천시, 시흥시 등과 합동으로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위반행위사업장 3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건 ▲악취 방지계획미이행 1건 ▲대기 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지 14건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대기기자측정 미이행 3건 ▲기타 7건 등이다.



경기도 인천시 시흥시 광역합동단속에 드론을 활용한 현장단속. /경기도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 시화산업단지 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원료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B도금업체는 산처리도금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다 적발됐다.

경기도 및 인천·시흥시 공무원과 지역민간환경감시단 등 총 33명으로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와 악취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처리실태를 집중점검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